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새보람

Saeboram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7년 6월 286호

(02)796-4280 www.kappd.or.kr



특집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당선인

▶ 2P



뉴스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고용의 미래전망

▶ 7P



국제

계단 오르내리는 휠체어
내년 출시 목표

▶ 15P



인물

도예가 김갑용 명장

▶ 19P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선거 김광환 중앙회장 재선

대의원 409명 투표, 308표 획득... “희망의 동반자 되겠다”



▲ 김광환 후보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8대 중앙회장에 당선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제8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김광환 후보가 당선됐다.

지장협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선거 결과 김광환 후보가 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중앙회장 선거는 김광환, 조향련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졌다. 선거는 대의원 422명 중 409명이 참여했으며 김광환 후보가 308표를 획득했다.

김광환 당선인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장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의 희망의 동반자로서 협회와 장애인복지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김광환 당선인은 크게 ‘안정적 협회 운영’과 ‘지방 조직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중앙회장 소환제도 마련 ▲지방조직의 운영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의회정치대학 운영 ▲장기근속 조직원 포상 및 예우 확대 ▲지체장애인 종합연수원 마련 ▲장애인 인권옹호 및 권익 신장 위한 (가칭)인권지킴이센터 지역별 운영 ▲편의시설 지원센터 역할과 고유 업무 대폭 확대 ▲지체장애인 보조기구 확대 및 보급 촉진 위한 지

원 사업 시행 ▲지역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지장협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광환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김광환 당선인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김광환 당선인은 서울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 제7대 지장협 중앙회장에 이어 향후 4년간 제8대 중앙회장으로서 활동하게 됐다. (2,3면에 계속)



▲ 김광환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인터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8대 중앙회장

김광환 당선인 인터뷰

Q.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8대 중앙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장협의 모든 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8대 회장선거는 저의 진심을 받아주신 모든 회원의 승리입니다. 앞으로 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지장협 발전과 장애인복지를 위해 성실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지장협 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Q. 제7대 중앙회장으로 4년간 지장협을 이끌어 오셨는데 제8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제가 지난 제7대 회장 직무에 임하였을 때 앞에는 절망스러운 커다란 난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선거 후 유증이었습니다. 중앙회장 직무정지가 처분 신청, 각종 고소 및 고발 사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각종 방해 공작 등 선거 패배에 대한 복수 행위가 약 4년 동안이나 계속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회원 앞에 약속드린 여러 가지 혁신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애써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협회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고 그동안 우리 지장협이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도전해온 역사를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지난 4년의 성과이자 앞으로 4년 동안 완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지장협은 새로운 모습으로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올바른 장애인상과 새로운 정신문화의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연임을 결심하게 된 계기였고 또 이번 임기에 달성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지난 4년간 중앙회장으로서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A. 어려운 질문이지만 75점 정도 주면

어떨까요? 이번 선거를 치루면서 전체 대의원들의 75% 이상 지지를 받았는데 이것이 저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더욱 분발해서 이번 임기에서 회원 모두가 공감하고 성원을 보내줄 수 있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향후 지장협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우리 지장협은 새롭게 변신해야 합니다. 변화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자기 성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장협은 우리나라 장애계의 말형 역할을 감당

김 광 환 제8대 중앙회장 약력

학 력

1984 국립 강릉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졸업
2004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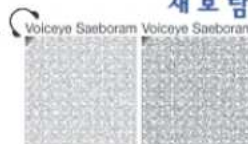
경 력

1990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입사(조직부장)
2001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근무
2001 보건복지부 편의증진심의회 위원
2001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200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
2001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이사
2002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이사(현)
2003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실무위원
2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시고용대책위원
2004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사
2005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회장
2013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7대 중앙회장
2013 국무총리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현)
2013 한국장애인재단 이사(현)
2016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현)

포 상

1996 올해의 위대한 서민대상 수상
2005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05 제1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유공자 표창(서울특별시 표창)
2012 대통령 표창





“

지장협 발전과 장애인복지를 위해 성실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해야 합니다. 특히 이익집단화 되어 있는 장애계가 기독교 의식에 젖어 있는 모습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인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적 요인이 충족되면 협회가 생겨나곤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권리가기에 앞서 부정적인 역효과를 가져온 측면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장애계의 목소리를 거부감 없이 받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계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이 역할을 자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정책토론회에서 우선적으로 이행할 공약으로 '장애인 의회정치대학 운영'을 꼽았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A. 지난 날 우리협회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은 장애인의 인권 신장뿐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런 노력이 사라지고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손실이었습니다. 지장협이 자랑하는 장애인 의회정치대학 운영이 과거의 한 시점에서의 업적으로 묻혀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장협 중앙회가 할 일은 무엇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지장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미래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정책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목표가 가시화되도록 준비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Q. 앞으로 지장협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들려주시고.

A. 현재 장애 유형도 많이 바뀌고 있는

데 태생적인 장애보다는 중도 장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장협이 장애를 입는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단체를 존속시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장애인단체는 결국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발생을 억제하고 줄여 나가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각종 안전사고와 산업재해가 중도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큰 손실입니다. 사회의 안전망 확대 및 장애 발생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과 더불어 장애인단체의 정체성과 필요성이 우리사회에 각인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점으로 우리 협회가 앞장서서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Q. 지장협은 장애계에서 가장 큰 당사자조직입니다. 정책토론회에서도 장애계의 연대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으신데요,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요?

A. 현재 장애계의 대표적인 연대체가 두 개 있습니다. 바로 '장총련'과 '장총'인데 각자 나름대로 고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장애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공로가 지대합니다. 그러나 가입되어 있는 단체의 특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그 구심력의 강도가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현재 장애계가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장애유형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소아마비와 같은 질환으로 지체 장애가 발생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달로 소아마비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오히려 발달장애 아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관련하

여 발달장애 아동 부모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 가족들의 고통이 아주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이 동반되기 마련인데 이런 질환은 치료보다는 상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결국 노인문제도 장애의 한 유형으로 기존의 장애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사회적 문제를 장애계의 연대 활동을 통해 대처하고, 가능하다면 통합 방안도 충분히 논의하여 사회보장 체계를 갖추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지장협 회원들과 장애인당사자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장애인 단체가 보여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모임 그 자체입니다. 솔직한 표현을 빌리자면 장애인의 친목 모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목회를 할 바에는 단체가 없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장애인 단체 활동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우리사회에 제시하는 장애인 정책을 제도 안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이 결국 사회구성원 모두에게도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사회가 궁극적인 복지국가

의 완성입니다. 지장협과 함께 미래의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원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작은 실천~ 건강검진

①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이상 지역세대주 및 직장피부양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 41세~만64세 의료급여세대주

※ 검진주기 :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에 1회)

②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40세와 만64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검사(표준건강검진, 골밀도 검사, 정신건강검진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상담을 실시

③ 암검진

- 대상자 : 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 위암 (만 40세이상, 2년주기)
- 자궁경부암 (만 2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유방암 (만 4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간암 (만 40세이상 고위험군, 6개월주기)
- 대장암 (만 50세이상, 1년주기)

④ 영유아검진

생후 4개월부터~71개월까지의 영유아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서울시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한국장애인운동... 연대의 해법은?

다양한 전략적·전술적 연대로 진보해야

한국장애학회가 '한국장애인 운동사'를 주제로 2017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공동주최해 연대의 해법을 논의했다.

기조발제는 동계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가 맡았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의 태동기인 해방 이후부터 지금

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발제하고 "장애인 운동의 궁극적 가치는 장애로 인해 차별받고 소외된 인권 회복에 있다"고 발언했다.

유 교수는 "유 교수에 따르면 차별과 배제에 대한 인권 회복 운동은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시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과 운동 주체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유 교수는 "다른 궤적을 따라 성장한 한국의 장애인운동은 같

은 듯 다른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다"며 "서로 다른 길을 가다 가끔 연대하고 격하게 충돌하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의 장애인운동"이라고 표현했다.

2000년대 들어 장애인운동은 장애인연금법 제정운동,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활동보조 법제화 운동,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운동, 건강권 보장 운동 등 수많은 운동이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

유 교수는 "각각의 운동은 서

로 다른 단체들이 주도하며 운동과정에서 일시적인 협력이 있었으나 공동으로 협력하고 운동의 동지로서 고민하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우리끼리도 통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서 특정한 목표와 전술이 항상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 때로는 차분하게 또 때로는 거칠게 상대방을 만나 논쟁하고, 협의하고, 연대하며 장애인운동을 앞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뇌병변장애인권위원회 김주현 회장은 발제자의 다양한 전략과 전술에 대한 고민에 집중하자자는 데 동의하며 명확한 비전을 함께 그려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세상은 모두의 권리가 공평하게 보장되는 사회"라면서 "단순히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교육과 실천으로 다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경희 상임대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적도 아닌 장애인단체들이 연대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며 "연대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조금 앞선 단체가 조금 뒤에 있는 단체를 당겨 주고 뒤에 있는 단체들은 앞선 단체들을 밀어 주면서 뻗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 한국장애학회가 '한국장애인운동사'를 주제로 2017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장고협, 토크콘서트 '희망톡톡' 개최

7월 1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무료 선착순 접수
성악가 황영택 등 강연과 마술 공연 등 볼거리 풍성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오는 7월 17일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토크콘서트 '희망톡톡'을 개최한다.

장애청년 취업지원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개최하는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구룡중학교 김현용 영어교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성악가 황영택이

강연자로 나선다. 이들은 취업과 진로로 고민하는 장애청년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격려할 예정이다.

이날 축하 공연으로는 희망나무 마술단, 휠체어댄스스포츠, 중창단 빛소리 등이 무대에 오른다.

토크콘서트 참가비는 무료이며 7월 8일까지 선착순으로 접

수한다.

참석하고자 하는 장애청년 및 전국 중·고등학교 청소년(장애·비장애), 학부모, 장애인 가족, 교사 등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문의(02-738-4054)하거나 홈페이지(www.kesad.or.kr)를 참고해 접수하면 된다.

2017. 07. 17.(월)
pm 2:00 ~ 4:30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지하2층)

장래청년 취업지원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토크콘서트
희망톡톡
tok! talk!

▲ 토크콘서트 '희망톡톡' 포스터.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정부 정보공개 통지서, 음성 안내한다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 코드로 확인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교부하는 7종의 모든 정보공개 통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를 개시했다.

국민이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청구하면 해당 기관에서 공개 여부 등을 통지하는데, 지금

까지는 음성 안내가 지원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인들은 통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5월 25일부터 정보공개 통지서의 오른쪽 상단에 내용을 저장한 음성변환용 코드를 삽입하기 시작했다.

이 코드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에 인식시키면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

부조직실장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보공개법 개정과 시스템 재편을 통해 열린 정부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혁신 시대, 배리어프리 의료기기 상용화 기대 의료접근성 공청회... 수요자 중심의 발전 강조

배리어프리 의료기기 개발 시급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의료기기 개선에 대한 주제로 공청회가 개최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충북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청회가 5월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먼저 충북대학교 의대 박종희 교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의료기기 개발의 필요성과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특히 국내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기술은 해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외 경쟁업체보다 아

이디어 쪽으로는 저평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교수는 “실제 사용자를 배려한 아이디어를 담아 의료기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비장애인의 사용성에 맞게 개발되고 보급돼 있다. 박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강외과에서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기가 대부분 비장애인 기준으로 제작돼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전동칫솔, 초음파치솔 등이 개발돼 있으나 이는 비장애인도 숙련되기 전에는 불편할 정도로 사용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정형외과의 경우 부목고정 시 장애인의 신체 굴곡과 특징 등

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장애인이 장기간 착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비뇨기과의 경우 자가도뇨관은 방광신경 등의 문제로 이상이 발생한 장애인의 필수기구다. 그러나 잦은 도뇨관 삽입에 따른 병원균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도뇨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박 교수는 장애인과 의료진이 의료 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참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배리어프리 의료기기 개발을 강조하며 그 예로 누워서 측정 가능한 신체계측기를 소개했다. 또 앉아서 측정 가능한 유방촬영기기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술 혁신으로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나 생체공학 임플란트, 나노기술 임플란트 등이 발전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TF 오상윤 팀장은 “배리어프리 의료기기는 고령자·장애인 등 수요자의 직접적인 사용 피드백을 기반으로 맞춤형 제작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투자계획이 마련된다면 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또 국산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신 필요

이어서 충북대학교 의대 신광수 교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 기술 활용 사례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혁신 사례로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예측 서비스를 소개했다. 3억 2천만건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정보를 바탕으로 자동배차 및 대기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 운전인력과 근무시간도 재배치할 수 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지팡이와 스마트 안경,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폐증 어린이 사회화 훈련 등도 데이터를 축적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신 교수는 앞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장애인 기술 혁신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향후 장애인 전용 자동차와 로봇기술 등이 상용화되며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장애인) 중심의 기술혁신을 이끄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의료기기 개선에 대한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정신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광고 시작

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맞춰 미디어 송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맞춰 정신장애 인식개선 광고를 시작했다.

40초 분량의 이 광고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각각 “영화를 좋아해요”, “할머니와 같이 있을 때가 행복해요”, “남편이랑 여행 다닐 때”, “강아지” 등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며 환하게 웃는다. 이들은 모두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멈춰버린 시간”, “내가 없던 날들”, “지우고 싶었던 기억들”이라며 ‘강제입원’의 경험을 말한다.

이 광고는 이날 저녁 SBS와 JTBC 뉴스 전후 첫 방송을 시작으로 7월까지 TV와 영화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송출된다.

이날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은 1995년 12월 제정된 정신보건법을 전부개정(제정과 같은 방식의 개정)됐다.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강제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정신병원 강제입원 비율은 61.6%이며 강제입원 기간은 평균 197일이다. 선진국보다 강제입원 비율이 높고 기간도 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광고에 모델로 참여한 김태욱 씨는 “정신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다르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광고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맞춰 정신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광고를 제작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도 행복한 성(性)을 누릴 권리

국립재활원, 제18회 성재활 세미나 개최

국립재활원 성재활실에서 '장애인의 성과 문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5월 25일 국립재활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후원아우성 조운숙 대표가 '우리나라 장애인 성 문화 역사와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조운숙 대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문화의 변화를 설명했다. 조선시대에는 혼기가 차면 결혼하는 게 당연했으므로 장애인도 결혼하기가 어렵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헌에 나온 옛날이야기를 보면 시각장애인 남편 앞에서 부인이 거짓말하고 놀리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예외소드가 나오는 등 장애인의 성과 인격을 존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로 건너와 전후시대에는 전쟁 중 상이용사들이 대표적인 장애인으로 인식됐다. 나라를 구한 용사들이지만 험한 이 미지로 인해 조금은 두려운 대상으로 인식됐다.



▲ 국립재활원 성재활실에서 제18회 성재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 후에는 능력이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되며 무성적인 존재로 낙인 찍혔다.

1990년대 이전에는 부모나 전문가에 의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폭행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자궁을 드러내는 일도 자주 있었다. 그리고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됐다.

이러한 억압에 저항하며 1990년대 자립생활이라는 문화가 생겼다. 장애인도 시설이나 집에만 갇혀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사회생활을 하는 제도적 장치와 문화가 탄생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는 연애와 결혼 등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장

애인의 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됐고 강사들이 늘어났으나 문화를 형성하고 제도화하는 작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2010년도에 들어서며 장애인의 성을 주제로 활동했던 개인이나 단체들은 거의 사라지고 장애인후원아우성과 국립재활원 등 몇몇 단체 이외에는 전무한 수

준이 됐다.

조운숙 대표는 "현재 어려움이 많지만 사회적인 여건과 인식이 나아짐에 따라 장애인의 연애와 결혼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며 "앞으로 쉽게 동성적인 성 욕구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노력하면 좀 더 행복한 성을 누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항 보안검색대 전동휠체어 제한 "차별"

인권위, 공항공사에 관련 업무 매뉴얼 작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공항 보안 검색 직원들로부터 이동 제한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월 2일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 내 보안검색

을 마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관계 직원들로부터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전동휠체어 사용 제1급 장애인인 진정인은 제주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마친 후 탑승구까지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려 했으나, 보안검색 직원이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하며 이동

을 제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전동휠체어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해 사용자가 보안검색대 통과 및 탑승구 이동시 항공사 직원이 동행해야 한다"면서 "진정인의 경우는 항공사 직원을 동반하지 않아 보안검색대 통과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아도 항공사의 승인 여부를 보안검색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보안검색을 마친 진정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승하차 환경개선' 법률 발의

한국장애인개발원 기능 강화 법률 등 2건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5월 24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장애인 관련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행우선 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 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포함하도록 해 강제성을 좀 더 강

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관으로 정한 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명시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자료 수집·구축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애인 단체나 기관과 중복돼 예산 낭비 및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다"며 "장애인개발원의 역할 및 수행 사업 범위를 장애인 관련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로 명확히 법률로 규정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장애인 일자리는?

비관과 낙관 공존... 정부 차원의 대비 중요

"장애인 일자리 위협" 비관 "고용 격차 해소" 낙관 공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6월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고용의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직업변동과 대응방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고용의 전망과 과제', '4차 산업혁명시대 발달장애인의 직업전망과 과제', '4차 산업혁명시대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라는 4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책행정, 사회 복지, 노동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발표자 및 토론자간의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한 의견 교류

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변민수 고용개발원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 등이 비장애인 일자리를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비율을 추정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단순 노무 종사자의 대체율이 90.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대체율이 86.1%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자들은 단순노무직에 26.7%, 농림어업에 14.1% 종사하고 있어 전체 취업자의 단순노무직 비율 13.3%, 농림어

업 종사자 비율 4.8%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변 부연구위원은 2020년 장애인 일자리의 잔존율은 51.6%로 전체 일자리 잔존율 57.8%보다 낮다고 분석했다.

변 부연구위원은 현재 장애인의 저임금을 고려할 때 비용이 비싼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바로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전반적인 자동화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임금 보호막이 무너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변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격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해외에서 뇌파로 타자를 치는 기기가 개발됐고 장애인의 노동을 보조하는 다

양한 보조공학기들이 추가로 개발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추가로 소개했다.

또 2005년 체스 마스터와 슈퍼컴퓨터 팀을 일한 대학생과 노트북 팀이 꺾은 사례를 예로 들어 인공지능과의 협력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직무 수행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철희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능동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에 적합한 첨단전문기술 분야 핵심인력 양성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특화 지원 등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

과 연계해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박성원 연구위원은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우리사회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시혜적 채용 넘어 호혜적 고용으로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함께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에서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패러다임을 고용의 무에서 고용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인력 양성,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산업계에서도 시혜적 성격이 아닌 호혜적 차원의 장애인 고용의 우수 사례를 확산시켜 다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고용의 미래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장애인등록증에 영문 기재 필요하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복지부에 건의

장애인이 해외 입국심사 및 현지에서의 다양한 혜택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영문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의 수월한 외국 방문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영문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요구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

동이 활성화되면서 해외에 나가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4.1%가 지난 1년 동안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도 희망하는 여가활동 2순위가 해외여행(31.4%)이었다.

솔루션은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해외 방문 시 공항 입국심사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 현지에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할인과 우선적 배려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권과 현행 카드만으로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해외 방문 시 주민센터에서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영문증명서가 막상 해외에서 본인임을 증명하기 번거롭고, 쉽게 훼손되는 등의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8년 장애인이 외국 방문 시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영문 표기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검토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솔루션은 장애인복지등록증 뒷면에 카드명칭, 이름, 장애 유형, 발급기관 등을 영문으로 기재해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UNESCO Identific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y

Identific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ies			
Name	Residence/Foreign registration No.	Photo (30mm x 30mm)	
Address	Disability		
Gender	Reason with disability		
Class and grade of disability	Other disability		
Registration date	Registration No.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named above is a person with disab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Definition of Disabled Persons, Act.

Year Month Day

Signature (Inhabitant)

▲ 영문 장애인증명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과정’ 마무리

24명 수료... 도내 학교, 관공서 등 강사 활동 예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는 약 두 달에 걸쳐 진행한 '2017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3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에서 진행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과정은 한국장애인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

해 파견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양성과정 참가자들은 이론과 실기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최종 수료를 마쳤다. 총 24명의 신규 강사들은 2017년 10월까지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관공서,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나 기관은 경기지장협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070-7727-7910)로 신청하면 된다.



▲ 경기지장협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신규 강사들을 배출했다.

대구지장협, '허들링 바자회' 개최

수익금은 지역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활용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이하 대구지장협)가 장애인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허들링 바자회'를 개최했다.

5월 27일 열린 이번 바자회는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앞마당에서 펼쳐졌다. 바자회의 이름인 허들링(Huddling)은 황제팬관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겨울 추위를 견

디는 방법을 뜻한다. 바깥쪽에 있는 팬관들의 체온이 떨어질 때 서로의 위치를 바꿔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추위를 극복한다. 대구지장협 측은 황제팬관들처럼 대구 지역 이웃이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바자회의 이름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자회는 먹거리와,

살거리, 불거리, 체험거리로 구성됐다. 살거리는 협회 및 산하 기관 임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기증한 아나바다 물품과 새 물품이 다양하게 진열돼 기금마련을 수월하게 도왔다. 불거리는 통기타 연주와 지역 가수의 공연으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대구지장협 김창환 협회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바자회를 찾아 주셨다"며 "바자회를 통해 대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고 감사

하다"고 말했다.

대구지장협 측은 이번 바자회 수익금을 대구 지역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 대구지장협이 장애인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허들링 바자회'를 개최했다.

주대중 후원회장, 500만원 쾌척

문경시지회에 장애인 복지기금 기탁

학교법인 함창학원 주대중 이사장이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이하 문경시지회)에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했다.

기금 전달식은 5월 19일 문경시지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문경시지회의 후원회장을 맡

고 있는 주대중 이사장은 복지기금을 전달하며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에 앞장서는 문경시지회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권익 증진에 매진해 달라"고 밝혔다.

기금 전달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

역사회의 관심과 후원이 건강 한 기부문화 형성에 밑거름이 된다"며 "더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후원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경시지회 박흥진 지회장은 "기탁해 주신 후원금은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감

사히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경시지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주대중 후원회장이 문경시지회에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 500만원을 기탁했다.

청송군지회, 한지공예품 전시

청송군사회복지박람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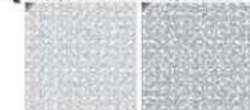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지회장 현갑삼)가 제2회 청송군사회복지박람회에서 여성장애인활동가의 한지공예품을 전시했다.

지난 5월 29일 청송을 소현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는 500여명의 군민이 참가했다. 이날 특히 여성장애인의 한지공예가 많은 참가자의 눈길을 끌었다. 지역 주민들은 한지공예를 유심히 바라보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청송군지회가 제2회 청송군사회복지박람회에 참가해 여성장애인활동가의 한지공예품을 전시했다.



지장협,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 협약

도내 군 단위 최초 건립... 지역 장애인 숙원사업 해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와 경상북도 칠곡군이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5월 25일 칠곡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지장협 김창환 부회장,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영식 협회장, 백선기 칠곡군수, 칠곡군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지역 장애인 6천여명의 숙원이자 공약사업”이라며 “장애인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

고 말했다. 이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운영해 달라”고 지장협 측에 당부했다.

지장협 김창환 부회장은 “국내 최대 장애인단체로서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장협은 이번 협약으로 5년간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게 됐다. 이에 6월 1일 지장협은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김영식 경북협회

장을 임명하고 오는 7월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돌입했다.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왜관읍 관문로1길 24-5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했으며 교육존, 치료존, 다목적존, 재활존, 강

당,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용고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칠곡군이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탁 트인 야외에서 중증장애인 “숨트기”

제주지장협,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도모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중, 이하 제주지장협)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숨트기’ 나들이를 다녀왔다.

지난 5월 29일 제주지장협은 재가장애인 48명과 함께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제주위터 서커스를 방문해 대형 분수 쇼를 관람했다. 이어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평화를 기원했다. 또 탁 트인 야외에서 대화를 나누며 사진을 찍는 등 여유롭게 공원을 거닐었다.

제주지장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해 일상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제주지장협이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들이 행사를 마련했다.

지체장애인, 주왕산에서 극기체험

포항시지회, “도전과 성취 계기 마련”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는(지회장 이경목) 5월 25일 청송 주왕산에서 ‘2017년 포항시지체장애인 극기체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대회에는 포항시 지체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 장애인들은 각각 자원봉사자와 짝을 지어 1폭포까지 올라갔다. 장애인과 봉사자가 함께 걷거나 휠체어를 타고 등산하는 등 곳곳에

서 다정한 모습이 연출됐다.

주왕산 1폭포까지 가는 길은 휠체어가 오르기에 완만하고 나무그늘이 이어져 있다. 장애인뿐 아니라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반에도 최적의 코스로 꼽힌다.

폭포까지 완주한 장애인과 봉사자에게는 축하의 박수와 함께 소정의 완주 선물을 전달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장애인들은 시원한 물을 마시며 성공

의 기쁨도 맛보았다.

대회에 참여한 지체 1급 오종길 씨는 “매년 청송 주왕산을 오르는데 올해도 내 한계에 도전하고 싶어 휠체어를 직접 끌고 목적지까지 등산했다”며 “내 체력을 확인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항시지회가 청송 주왕산에서 지체장애인 극기체험대회를 실시했다. ▶



장애인가족의 특별한 2박3일 인천 영종도에서 “아름다운 동행”

인천 지체장애인들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 영

종도로 힐링여행을 다녀왔다.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임순봉, 이하 인천지장협)가 주최한 이번 여행은 장애인가족을 봉사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했다.

인천지장협은 이번 여행을 위해 평소 이동에 어려움이 많았던 중증 지체장애인 20명을

사전 선정했고 안전도우미로 국제평화지원단 군 병력 15명의 협조를 받았다.

이번 여행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생애 처음으로 오픈카를 타고 바닷가를 달렸다.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또 인천지장협은 참가자들이 마음을 열고 즐길 수 있게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인기가수 초청 위안잔치도 마련했다.

홍성군,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오픈

홍성장복, 한국장애인개발원 협력... 'I got everything' 12호점

충청남도 홍성군에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I got everything(아이갓에브리씽)' 12호점이 문을 열었다.

홍성읍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카페는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한국장애인개발원, 홍성군청의 협력으로 개소했다.

5월 25일 진행된 개소식에는 복천구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석환 홍성군수,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등이 참석해 중증장애인 바리스타를 격려했다. 카페에 직접 고용된 중증장애인 바리스타는 2명이다. 이들은 개소식에서 협찬 출발

을 다짐했다.

현재 충남에는 이번에 개소한 12호점을 포함해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가 7곳이 됐다. 각 카페에 채용된 중증장애인 바리스타는 총 19명이다.

카페 'I got everything'은 커피를 사고파는 사회적 나눔을 행하면서 "즐거움을 소유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커피를 만들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카페를 찾는 소비자는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 충남 홍성군에서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I got everything' 12호점이 개소했다.

청소년하모니합창단 창단 연주회 개최

유성장복 발달장애인 40여명 "희망 선사"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소년하모니합창단의 창단 연주회가 유성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청소년하모니합창단은 발달장애인 4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5년 3월에 창단했다. 5월 26일 진행된 이번 연주회는 한국수련원자력(주)중앙연구원

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일기 유성구 사회복지국장, 민태권 유성구의장, 김동섭·송대윤·정기현 시의원 등 여러 내빈과 300여명의 관객이 참석했다.

합창단은 '어느 봄날'을 시작으로 'Hine Ma Tov' 등 명곡을 들려줬다. 또 합창단 부모회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부르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합창단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는 노은고등학교 한상일 학생과 합창단 반장으로 단합에 힘쓴 지족고등학교 최해진 학생(지적장애 3급)에게 교육감상을 수여했다. 또 합창단 부모회에서는 침례신학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홍순탁 학생(시각장애 2급)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박병구 관장은 "매주 금요일이면

합창단의 노랫소리로 복지관에 행복이 넘친다"며 "앞으로도 즐거운 노래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성장복 청소년하모니합창단이 창단 연주회를 개최했다.

'우리 가족 짱!' 가족사진 콘테스트

서산장복,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 돌아보길"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이하 서산장복)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돌아보는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실시했다.

5월 23일 복지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손자

품에 안고 다정하게 뽀뽀하는 사진을 출품한 서○○ 씨가 받았다. 이밖에 총 4개 부문 15명의 가족이 상장과 상품을 받았다.

이날 수상자 중 이○○ 씨는 "핸드폰에 늘 가족사진을 넣고 다니는데 소중한 사진으로 상

을 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 소소한 일상들을 더 많이 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산장복 김준관 관장은 "이번 행사는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했다"

며 "앞으로 장애인 가족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산장복이 '가족사진 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했다.

장성장복-장성지역자활센터 MOU

지역사회 재가복지서비스 협조 약속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성장복)과 전남장성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박종태)가 지역사회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수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양 기관의 협약식은 6월 1일 장성장복에서 진행

됐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재가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사례 공유,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물적자원 지원 등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장성장복 이대원 관장은 "이

번 협약이 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상호 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장성장복과 장성지역자활센터가 지역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행복충전 노원마을 만들어요”

행복 나눔 기금 마련 ‘북부행복 호프(HOPE)데이’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북부장복)은 5월 19일 행복 나눔 기금 마련을 위한 ‘북부행복 호프(HOPE)데이’를 개최했다.

복지관 앞마당과 마들근린공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성한 노원구청장, 오송록 서울시의원 등 내빈이 참석했고 지역주민과 복지관 이용고객 500여명이 찾아 나눔에 동참했다.

먹을거리 나눔과 바자회에 함

가자들이 모여 들었고 노원에 코센터 천연 페브리즈 만들기, 중앙천 환경센터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 체험 행사 등도 인기를 끌었다. 또 대한약사회에서 건강상담을 진행하며 영양제와 응급키트를 전달해 호응을 얻었다.

그뿐 아니라 행사에서는 노래자랑과 행운권 추첨 등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북부장복 손영호 관장은 “장애인 앞장서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아가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을 격려했다.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북부장복이 북부행복 호프(HOPE)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



부여장복, 장애인 건강 증진 앞장

부여보건소·인구보건복지협회 연계... 호응 높아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부여장복)이 지난 5월 23일 복지관에서 장애인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부여보건소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협조로 열린 건강검진은 기본 건강검진을 비롯해 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전

립선암 등 암 검진을 지원해 참여도를 높였다. 평소 병원을 찾기 쉽지 않은 장애인들이 이동건강검진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 밖에 이웃 주민들도 함께 검진에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높였다.

부여장복 정도기 관장은 “매

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저소득 장애인들이 참여하지 않아 질환예방 기회가 줄어들고 장애와 질병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부여장복이 장애인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장애가정과 비장애가정의 만남

충남남부장복, ‘특별한 가족’ 프로그램 실시

장애가정과 비장애가정이 만나서 교류하는 ‘특별한 가족’ 프로그램이 열렸다.

충청남도남부장복(관장 서현미)은 장애가정과 비장애가정의 만남을 통해 장애 인식을 개선하며 장애가정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첫 만남은 5월 20일 카페 플루메리아에서 이루어졌다. 오리엔테이션으로 각각의 가정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이

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 ‘명찰 만들기’,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장애가정 부모는 “참여해보니 가족들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계속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특별한 가족’은 오는 10월까지 월 1회씩 총 6회 진행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 충남남부장복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한 가족’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태안장복 합동소방훈련 실시

태안소방서와 함께 신속한 대피훈련

태안군장애인복지관(이하 태안장복)이 태안소방서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5월 22일 복지관 이용고객 및 직원 등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훈련은 화재 발생 상황을 연출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복지관 직원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를 주축으로 사

이렌과 연막탄을 터뜨려 화재 상황을 연출했다. 곧바로 화재신고를 한 후 이용고객들이 신속히 복지관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쓰러진 환자에게 CPR(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빠르고 정확한 대응력이 돋보였다.

태안소방서 이종태 진압 3팀 대장은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 및 환자 발생에 대비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태안장복 이종만 관장은 “장애인복지관 이용고객은 신체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더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복지관은 모의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태안장복이 태안소방서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버드일루전 마술 공연’ 가정의 달 맞아 지역 장애인 문화 충전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준희, 이하 의정부장복)이 지역 장애인을 초청해 ‘버드일루전 마술쇼’를 펼쳤다.

지난 5월 19일 열린 이번 마술쇼는 SBS ‘스타킹’의 마술사 바이벌에서 마술왕을 차지한 최형배 마술사가 진행했다.

최형배 마술사는 매직듀오팀과 함께 버드일루전, 레이저마술, 카드, 공 등을 이용한 환상적인 마술쇼를 선보였다. 이날 참석한 이용고객 80여명은 아

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즐거움을 표현했다.

의정부장복은 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매월 1회씩 문화데이(DAY)를 개최하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여가 생활을 제공해 문화 소외감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장복이 ‘버드일루전 마술 공연’을 통해 지역 장애인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



“수화 배우며 장애 인식 개선해요” 아산장복, 순천향대 새아침자원봉사단과 캠페인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이하 아산장복)이 순천향대 학생들과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장애인의 행복 더하기’를 주제로 열린 캠페인은 5월 23일 아산시 배방 삼성트라팔리스 앞 하트광장에서 펼쳐졌다.

이날 아산장복 직원들은 장애인 복지사업을 홍보했고 순천

향대 새아침자원봉사단 학생들은 간단한 수화 교육을 진행하며 아산시민들과 소통했다. 또한 지(指)문자를 활용한 명함 만들기 공모전을 함께 진행하며 재미있는 참여를 유도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 “아이와 함께 지문자를 활용한 명함 만들기 참여하면서 수

화도 이들을 표현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다”며 “조금이나마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산장복 이창호 관장은 “장애인이 행복한 희망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우리 복지관 사명을 많은 아산시민이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아산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아산장복이 순천향대 새아침자원봉사단과 함께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체육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영천장복 주간보호센터, 상반기 체육대회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재근, 이하 영천장복) 주간보호센터와 영천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함께 2017년 상반기 체육대회를 실시했다.

체육대회는 5월 19일 영천 강변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영천장복 주간보호센터 이용고객 13명과 영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용고객 15명이 참여했다.

이용고객들은 서로 협동하며 등글게 등글게, 고리 던지기, 색판 뒤집기, 신발 던지기, 한마음 달리기, 공 던지기, 댄스타임, 장애물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보물찾기 등 10종 경기를 치렀다.

영천장복 주간보호센터는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체육대회를 개최해 이용고객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영천장복 주간보호센터가 2017년 상반기 체육대회를 실시했다.

부부 금슬 좋으면 “만사형통”

김천장복 ‘할매·할배의 날’ 호응 높아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 노(老)부부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할매·할배의 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5월 25일 김천시 농소면 소재 이화관리 도문요에서 개최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장애

인 부부 8쌍이 참여했다. 부부들은 이화관리 프로그램인 목각 원앙과 한지 부부인형 만들기 함께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선하 관장은 “재미있는 체험 활동을 통해 배우자와 즐겁

게 소통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 참가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자와 자연스레 대화하며 예쁜 작품을 함께 만들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말했다.



▲ 김천장복이 장애인 노(老)부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할매·할배의 날’을 진행했다.

부산시·BEXCO, 장애인 및 시니어 용품 전시

제10회 국제 복지재활 시니어 전시회
KORECA 2017 Korea Rehabilitation & Senior Care
 2017. 6. 29(목) ~ 7. 1(토) BEXCO

휠체어용 프리미엄담요 등 3개 제품이 등록,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6개 제품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 참고)

[illegible]

용인시치매인장애인지원

장애인식개선공모전 '언어의 온도' 시상

"차별에 머무르면 빛나는 별을 볼 수 없어요" 등 11점

용인시치매인장애인지원 장애인식개선공모전 '언어의 온도' 수상작을 발표했다. 시상식은 5월 18일 복지관에서 열렸다.

'언어에는 따뜻함과 차가움이 공존한다'는 개념에서 착안한 이번 공모전은 슬로건과 캘리그래피 부문으로 나눠 작품을

모집했다.

먼저 슬로건 부문은 '장애는 장애를 만들지 않습니다. 편견이 장애를 만들 뿐입니다'를 비롯한 6점이 선정됐다. 캘리그래피 부문은 '차별에 머무르면 빛나는 별을 볼 수 없어요'를 비롯한 5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캘리그래피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인 정서연(16) 학생은 작품을 통해 "장애 차별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이 생긴다"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슬로건 부문 우수상 수상자인 김경민(32) 씨는 "이번 공

모전을 통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처음 해보았다"며 공모전을 개최한 복지관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공모전 수상작품은 향후 복지관에서 작품집 발간, 전시회, 이미지 상품 등록, 행사, 교육, 언론홍보 등에 사용할 예정

이다.

복지관 박상구 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캘리그래피 부문 최우수작.



▲ 용인시치매인장애인지원이 장애인식개선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시상했다.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지체장애 전형우 등 31명 3관왕 쾌거

장애인체육 꿈나무의 축제,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충청남도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와 장애학생 1639명이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대회 기간 4개 종목에서 31명의 3관왕이 배출되며 큰 환호가 쏟아졌다. 역도에서

는 지체장애 부문의 지민호(충남, 16)를 포함해 15명, 수영에서는 지체장애 부문의 전형우(대전, 15) 등 9명이 3관왕에 올랐다. 탁구에서는 지체장애 부문의 신나해(경기, 16), 디스크골프에서는 지체장애 부문의 김경우(전북, 18)를 포함해 전북 소속 6명이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시·도별 메달 집계 현황은 경기가 147개(금 51, 은 42, 동 54)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선수, 지도자 등 모든 참가자를 아우르는 운영이 돋보였다. 실내 조정에서는 선수들을 인솔한 교사들의 번외 경기가 열려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열렸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휠체어육상 간판스타 홍석만

국내 최초 IPC 선수위원 선출

장애인체육의 간판스타 홍석만(휠체어육상, 43)이 국내 최초로 IPC 선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홍석만은 지난 2016 리우패럴림픽대회 기간 중 IPC 선수위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권에 들지 못했으나 이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IPC 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는 영광을 안았다.

IPC 선수위원회는 장애인선수를 위한 권익 증진 사업 및 의견 수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 선수들의 은퇴 이후 진로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는 곳이다.

선수위원회는 하계 종목 6명, 동계 종목 3명, 호선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홍석만과 심가포르의 누틀라시카 모

하마드 타하(보치아)가 호선으로 선출됐다.

IPC 선수위원회는 IPC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및 국제대회에 참석해 선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으로 2018년 9월까지이며 평가에 의해 연임이 가능하다.

홍석만은 오는 11월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되는 IOC 및 IPC 선수위원회 합동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휠체어육상 홍석만 선수가 국내 최초로 IPC 선수위원에 선출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 ▶



계단 오르내리는 차세대 휠체어 공개

최대 속도 시간당 10km... 17도~34도 계단 올라

가파른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새로운 휠체어가 등장했다.

아이디어 제품을 다루는 테크레이블 등 외신은 스위스 국립 공과대학(ETH Zurich)과 취리히 예술 대학(ZHDK) 학생이 연합해 만든 전동 휠체어 'Scewo'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014년 스위스 국립 공과대학 학생 10명이 개발을 시작한 이 휠체어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디자인도 놓치지 않기 위해 예술 대학 학생과 연합해 만들었다.

Scewo는 지난 2015년 소개된 Scalevo의 개량형 휠체어다. 디자인과 성능이 업그레이드됐다는 평이다. 이 휠체어는

전기 이륜차 세그웨이 스타일의 균형 시스템에 큰 바퀴 2개와 고무 캐터필러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세그웨이는 2001년 미국의 발명가 딘 카멘이 개발한 1인용 탈것으로, 탑승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몸의 기울기 등을 계산해 적용하는 균형 메커니즘을 활용한 제품이다.

Scewo는 크게 네 가지 모드를 지원한다. 평면 주행에 적합한 드라이빙 모드(Driving Mode), 계단을 오르내리는 스테어 모드(Stair Mode), 안전하게 휠체어를 고정해주는 정지 모드(Safe Mode), 의자를 높여주는 엘리베이터 모드(Elevated Mode)로 구성됐다.



▲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전동 휠체어 Scewo. ©Scewo

특히 Scewo 계단 모드는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해 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Scewo의 최대 속도는 지상

에서 시간당 10km이며 17도~34도의 계단을 오를 수 있다. 크기는 폭 65cm, 길이 105cm이며 중량은 101kg이다.

Scewo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한다.

“나는 시각장애인 치어리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하는 패러치어 팀 화제

영국 패러치어 팀(paracheer team)의 일원인 스테파니는 이렇게 말한다.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 커요.”

공중점프, 텀블링에 피라미드(인간 탑 쌓기)까지 고난도 동작을 척척 해 보이는 스테파니는 시각장애인 치어리더다.

패러치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가 함께 경쟁하는 종목으로 장애인 선수의 동작이 얼마나 조화로운지가 평가 기준이다. 영국 패러치어 팀은 제1회 세계 패러치어리더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연습에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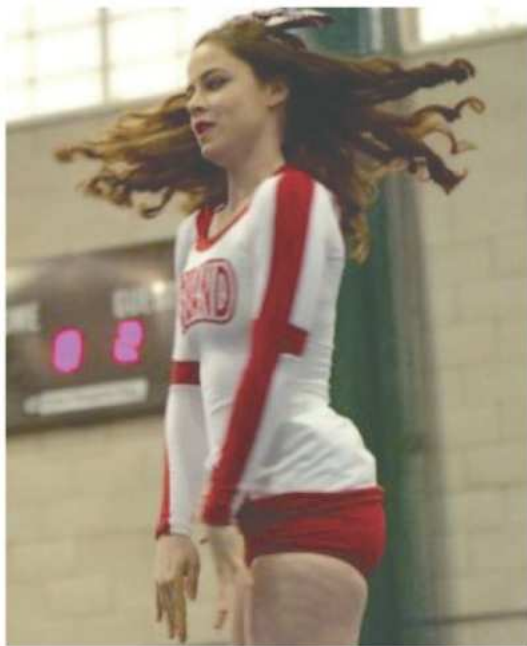
스테파니의 왼쪽 눈은 완전 실명 상태다. 거리 감각이 없다. 오른쪽 눈은 팔을 뻗었을 때 거리 정도는 보이지만 사물을 분간할 수 없다. 명암을 구분할 수 없는 스테파니를 위해 팀원들은 공인 중 형광색 물체를 사용한다.

따라서 패러치어에서 장애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다.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한데 어우러져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다.

“제가 공중 점프할 때 저를 밑에서 받아주는 팀원은 어깨 부위에 야광색 천을 덧대요. 그 래야 제가 내려올 때 그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요. 텀블링할 때는 팀원이 매트 끝에 야광색 깃발을 들고 서 있어요. 덕분에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인 스테파니에게 패러치어는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런데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패러치어는 놀라운 경험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꿈꾸게 해주죠. 그것이 치어리더로서, 사랑으로 저를 성장시켜요.”



▲ 영국 패러치어 팀 일원인 스테파니. ©BBC

장애인 도우미 아바타 등장

인공지능 기술로 컴퓨터 작업 척척 수행

뉴질랜드의 한 회사가 장애인 도우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아바타를 개발했다. 소울머신스는 영화에 자주 사용되는 애니메이션과 AI 기술을 이용해 실생활 도우미 아바타를 만들었다. 또 이 기술이 곧 호주에서 50만명의 장애인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술은 감정지능을 갖춘 '나디아'라는 아바타로 만들어졌다. 사용자들이 아바타에게 말을 하면 실제로는 컴퓨터에 얘기하면서 마치 사람처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바타는 아카데미상을 받은 호주 출신 유명 배우 케이트 블란쳇의 목소리를 담아 친숙함을 더한다.

사용자들은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사람 얼굴을 한 아바타와 소통하게 된다. 아바타는 감정을 표시하며 질문에 답한다. 컴퓨터화된 작업은 지시에 따라 척척 수행한다.

이 기술 개발은 마크 세이거 소울머신스 최고경영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웰링턴에 있는 웨타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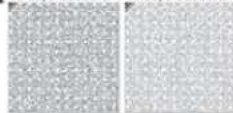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도우미 아바타가 등장했다. ©뉴스허브

에서 일할 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바타, 킴콩, 스파이더맨2 등을 만드는 데 참여해 두 차례 아카데미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

세이거는 새로운 AI 기술을 호주에서 사용하면 50만명에 달하는 장애인의 일상 생활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팔을 움직이는 게 어려워 문서 작성 시 입력에 곤란함을 겪었던 장애인들은 아바타가 그 일을 대신 하게 된다. 또 아바타의 도움으로 좋아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도 있다.

세이거는 제품 출시를 하루빨리 앞당기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17 장애인 맞춤형 취업박람회... 100여명 참여

경비직, 사무직, 웹디자인 등 29개 구인업체 채용 상담

'2017년 장애인 맞춤형 취업 박람회'가 5월 16일 이룸센터 이룸홀-누리홀에서 열렸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서울지역 직업재활 네트워크 유관기관 도움이 주관했다. 도움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9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박람회에는 경비직, 미화직, 콜센터 상담직,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식기세척, 웹디자인

등 다양한 업체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구인업체는 29곳이었으며 상담을 받은 장애인은 109명이었다.

박람회에 참여한 한 장애인 구직자는 "다른 박람회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박람회 관계자는 "구직자를 사전 협의해 장애유형과 특성

을 파악하고 구직자의 욕구에 맞는 업체를 섭외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용한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박람회는 채용상담 외에도 무료 증명사진 촬영, 추천을 통한 다양한 사은품 제공 등 부대행사가 펼쳐져 참가자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 2017 장애인 맞춤형 취업박람회에 100여명의 장애인들이 구직상담에 참여했다.

장애인공단, '주사액 패키징 직무' 개발

단순 반복적 업무로 발달장애인 적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고용개발원)이 주사액 병을 소독하고 충전 공정을 관리하는 '주사액 패키징 직무'를

개발해 의약품 산업 내 장애인 고용 확산에 나선다.

고용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의 직업영역으로 주사액 충전 패

키 직무를 발굴해 주식회사 녹십자수의약품에 장애인 2명이 취업했다고 6월 7일 밝혔다.

녹십자수의약품에 취업한 발달장애인 홍준혁(36) 씨는 "몇 년간 아르바이트만 하고 회사에 취업한 적이 없었다"며 "취업해서 약품을 넣기 전 주사액 용기를 세척, 정리하는 일을 하는

데 며칠만 더 연습하면 동료만큼 잘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의약품 산업은 고령화와 복지증진 추세에 따라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군이다. 주사액 충전 패키징 직무는 정확성이 필요하지만 단순 반복적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수행하기에 용이하다고

공단은 판단했다. 향후 의료가 기업체인 지멘스헬스케어 등으로 채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순홍 공단 고용개발원장은 "주사액 충전 패키징 직무를 시작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의약품산업에 더 많은 장애인이 다양한 직무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인증업체



**장애인의 꿈의 일터를 만들어가는
포항시장장애인재활작업장**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애인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사랑의 일터'입니다.



비닐봉투 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혜택
쓰레기종량제봉투 / 마트용봉투 / 각종 비닐봉투 제작





현수막·인쇄광고 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혜택(현수막·배너·유포지)
명함 / 전단지 / 포스터 / 리플렛 / 브로슈어 / 책자디자인





봉제 및 임가공 사업
봉제사업 : 토시, 각반, 맘수건, 홈패션 등 각종 봉제품 제작
임가공사업 : 자동차부품조립, Brush disk 식모작업 등



납기일 준수 · 세금계산서발행 · 카드결제가능

37618 경북 포항시 북구 대곡로43번길 3-3 (두호동)
T. 054)251-0844 F. 054)252-0670 E. 2550844@hanmail.net

“우리는 대한민국의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서비스, 모든 사람들의 서비스(기본권)와 다르다?



▲ 장애인들이 집회를 열고 탈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이용 장애인이 일반적인 주거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등 환경적 요인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서비스 중에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향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일반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자립, 자기결정권, 생활이 아닌 거주, 개념, 시설의 소멸화 등에 대한 목소리가 부지기수다. 모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주시설 서비스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등의 이유로 가정과는 분리된 역사가 있어왔고 현재도 경제적·효율성 중심 논리에 기반해 대부분 대형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대형시설의 사회적 문제는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으로 각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탈시설화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념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장애계에서는 물꼬를 댔다고 할 수도 있다. 장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그 정책은 국민들이 관심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정책의 한계점이나 이용자들에게 여러 제한적인 부분을 두어 ‘낙인’과 같이 본래의 위치와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실 재정과 정책과 국민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도를 따지기 보다는 모든 부분이 소통되어야

하며 비로소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아직까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탓일 것이다.

탈시설은 경제적 기반의 시설의 대량화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로 인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것을 말하며, 거시적으로는 퇴소 이후에도 일상적인 삶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탈시설 개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일상적인 삶(ordinary life), 사회적 모델, 자립생활운동, 당사자주의’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탈시설 관련 운동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단순한 물리적 탈시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아무리 좋은 시설과 공간이 있는 곳이라도 내 집만큼 최고인 곳도 없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장애인이 거주(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기준을 <표 1>과 같다.

<표 1> -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운영 기준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6세 미만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 10명 이하, 6세 이상의 경우 8명 이하로 한다

다음은 <표 2>는 주택법에 따른 건설규

준부 공고(2004)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이 최저 주거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의 침실의 면적은 1인실과 2인실의 구분에 따라 최저면적이 명시되어있고, 주침실 면적, 부엌, 기타 면적도 일정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표 2> - 대한민국의 최저주거기준(건설교통부 공고 제2004-173호 기준)

- 1인 침실: 5.76㎡
- 2인 침실: 8.10㎡
- 주 침실(2인 생활, 옷장 등 구비): 10.80㎡
- 부엌(4인 가구): 3.0㎡
- 기타 면적(화장실, 수납공간, 현관): 11.92㎡

<표 1> -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운영 기준과 <표 2> - 대한민국의 최저주거기준(건설교통부 공고 제2004-173호 기준)을 대조해 본다면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장애인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해야 할 기본권에서 소외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의 개인침실에 나온 ‘공간요구 기준’에는 인당 일정 바닥 면적, 4인실 이하를 지향하는 등 기준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중언전장치 조차 ‘원장’사항일 뿐이다.

복지라는 모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빠른 고령화 등으로 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회적 모델을 지향하고 정부의 적극적 정책을 도모

하고 세부지침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우리나라는 그럴듯한 가이드라인이 매우 부실하거나 거의 없다.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한적 규정(정책), 그 규정으로 인한 대국민 인식, 정부의 예산 문제, 인권, 서비스 제공 방식 자체의 문제점 등 부분적으로라도 바뀌기 힘들고 계속 정체된 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어느 수준을 넘었다고 해도 장애인 복지의 사회적 모델과 현실을 비교할수록 괴리가 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동시에 작동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탈시설과 거주시설 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진다.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여러 사회 복지 분야를 총망라(장애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큰 과제이자 위기임을 인지하고는 있다. 장애계에서 사회적 모델을 지향하며 일부 변화가 보이지만 세부적이지 못한 가이드와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적 태도에 따라 개선 속도가 더디다.

위의 서론에서도 언급한 재정과 정책, 국민들의 인식변화 이렇게 세 박자가 두루 갖추어져야 한다.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장애인 당사자 기반의 인권과 정책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박준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중앙지원센터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제도 알아보기

신성철 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 2조 3항)

◆ 장애인 학대 유형 및 징후

- **신체적 학대**
 -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장애인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상처, 멍, 땀 자국이나 흉터, 출혈이 있다.
- **성적 학대**
 -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하는 말이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한다.
- **정신·정서적 학대**
 -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거나 소극적이고 타인을 회피한다.
- **가혹행위**
 -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 지나치게 피로해 하거나 살이 빠져 말라 있을 수 있으며, 노동으로 인하여 의복이 흠이나 기름때 등으로 오염돼 있을 수 있다.
- **경제적 학대**
 -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장애인에게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도 형편없는 돌봄이 제공되는 경우와 본인이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거나 타인이 관리해 준다고 대답할 수 있다.
- **방임·유기**
 -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장애인의 건강이나 주거 환경이 불량하고 가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도움을 거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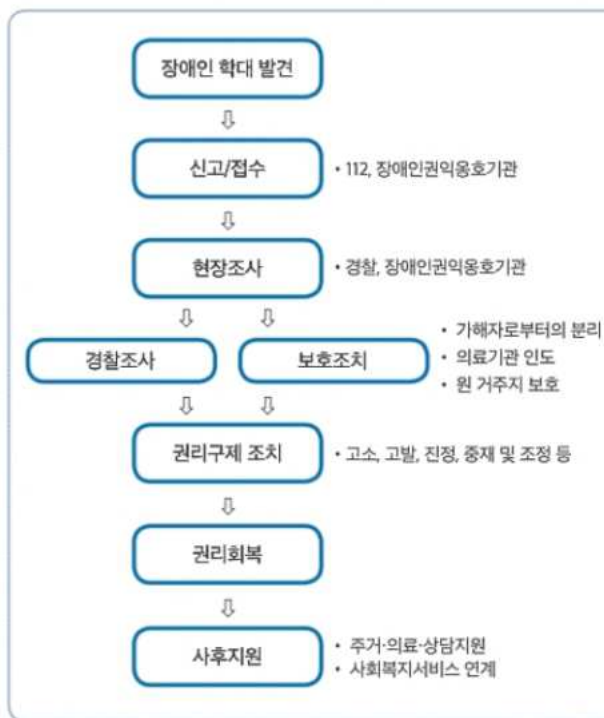
◆ 장애인 학대의 특징

- 가정 내, 장애인 시설 내, 직장, 학교 등 우리 주변에서 은밀하게 일어난다.
- 보호자, 복지서비스 제공자, 직장 동료, 이웃 등 장애인과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 학대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학대임에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 장애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 장애인 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직군의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신고의무자는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 제2항)

◆ 장애인 학대 신고 및 처리 절차



◆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학대 예방법

-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한다.**
 - 장애인은 단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동등한 인간'이다.
- **장애인 인권교육/학대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스스로의 인권감수성을 돌아보고 높인다.
- **당사자 권리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힘을 배양한다.**
 - 가장 좋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법이다.
- **학대의 징후를 유심히 관찰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다.**
 - 장애인학대 신고(수사기관, 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
 - 장애인학대 상담(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센터)

※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교육자료

사회복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상담소, 보호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의료인, 응급구조대원, 교육기관 종사자	



인물포커스

천년의 숨결을 되살린 녹청자 도예가 김갑용 명장

녹청자(綠靑瓷)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다. 고려시대의 청자, 이조시대의 백자를 생각하면 도자기의 한 종류일 것이라고 연상된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녹청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천 년 전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등장했던 도자기이다. 토기에서 자기로 넘어가는 변천과정에서 등장했던 도자기라고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도예가 김갑용(60세) 씨는 인천광역시 공예명장이다. 선친의 뒤를 이어 오직 도예가로서의 외길을 걸어왔다. 그는 훌륭한 문화유산 녹청자를 천년의 잠에서 일깨워 숨결을 불어넣고 역사의 재조명을 받도록 한 인물이다. 녹청자 도요지가 발굴된 이후 녹청자에 대한 존재를 확인했지만 그 실체를 복원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었다. 김갑용 명장은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끝에 복원에 나섰다.

녹청자 도요지를 찾아다니며 옛 조상들이 가마터에서 파기하여 버린 파편을 찾아 모았다. 가마터 인근의 흙과 유약이 될 만한 재료를 모아 연구를 거듭하고 전통적인 기법으로 그릇을 빚고 가마에 굽고 또 구웠다. 지루하고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조상들이 남긴 흔적과 비슷한 제품들이 윤곽을 드러내었다. 흙어진 작은 조각들을 제자리에 끼워 맞추듯 그렇게 녹청자 제작 기법들을 터득해갈 수 있었다. 인고의 세월을 흘러 마침내 천 년 전 조상들이 사용하던 것과 같은 녹청자를 세상에 내어 놓았다. 이 도자기는 숨을 쉬는 도자기였다. 식료품을 담아 놓으면 쉽게

변질되지 않았고 녹청자로 만든 화병의 꽃은 쉽게 시들지 않아서 여러 날 동안 그 모습을 싱싱하게 유지해주었다.

고려청자와 백자 도자기는 상류층에서 사용하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제품이었다. 이와 달리 녹청자는 서민 대중들이 실제 생활에서 널리 사용했던 생활자기라 할 수 있다. 서민들의 생활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장점을 많이 품고 있던 도자기였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열과 혼이 살아 숨 쉬는 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한 채 영원히 사라져갈 뻔했다.

녹청자는 거친 태토(胎土 : 도자기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흙)와 소나무의 재로 만든 잿물 유약을 시유(施釉 :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 표면에 잿물을 바르는 일)하여 구운 것으로 표면의 유약 상태가 거칠고 고르지 못하나 숨을 쉬는 특징을 갖고 있다. 마치 우리의 전통 용기가 숨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녹청자 역시 숨을 쉰다. 고려시대의 귀족들이 쓰던 고급 청자나 조선시대 지배계층의 백자와는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성형한 무문자기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녹청자는 그 시대의 대중들이 실제 생활용품으로 널리 사용한 그릇이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과 해남의 진산리, 보령의 사호리, 경기도 시흥 방산리 등지에서 가마터가 발견되어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 양식은 자유분방하고 우리의 토속적인 생활 정취를 품고 있으며 미적인 표현보다는 기능성에 집중한 실리적인 생활 용품이었다.



▲ 녹청자 도예가 김갑용 명장.

도예가 김갑용 명장은 충남 홍성군 금마에서 5대째 가업을 이어 용기를 구웠던 용기장이고(故) 김동진 씨의 아들로 성장했다. '금마 정촌 용기대장'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동안 역사의 뒷안길에서 외면 받아온 우리 그릇인 녹청자의 재현을 위해 힘을 쏟았다.

"고려청자가 귀족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여 특수한 신분의 상위 계층이 장식용 또는 부의 상징으로 사용했다면 녹청자는 서민들의 민요였으며 대다수 하층 서민들의 생활용기로 사용되었던 도자기"라고 말하는 김갑용 명장은 "토기에서 자기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자기로써 고려청자 탄생의 선구자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

녹청자를 굽던 가마터가 1960년대 인천 서구 경서동에서 발견되었다. 1965년부터 1966년까지 4차례 이상 발굴 조사를 통해 녹청자 도요지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곳

은 문화와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높아 국가사적(제 211호)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국내 곳곳에서 가마터를 확인하게 된다.

인천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는 우리의 도자기 역사 연구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곳이다. 이곳에서 녹청자도요지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이와 같은 구조의 도요지가 일본에서만 두 곳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것을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부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인천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 발굴과 함께 제조기술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는 앞으로의 연구에 따라서는 도요기술의 일본 전래 경로를 밝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과 같이 김갑용 명장은 오래 전부터 우리의 전통문화유산 녹청자에 관심을 갖고 이를 재현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거듭했다. 오랜 시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마침내 녹청자를 세상에 선보였지만 그 명맥을 이어줄 방법이 거의 없다. 녹청자도요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고 실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후배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전승을 위한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한 것이다.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고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후손들에게 또 하나의 문화유

산을 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우리나라 초기 청자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뿌듯한 마음을 가져 봅니다. 녹청자는 용기처럼 숨을 쉬는 특수한 기능의 생활 그릇이지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웰빙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녹청자를 그냥 땅속에 묻혀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녹청자 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도예가 김갑용 명장은 "녹청자는 오로지 이 땅에서 나는 흙과 물과 바람으로 그릇을 빚어낸 것입니다. 녹청자에 바르는 유약도 자연에서 얻어진 것으로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이 훌륭한 녹청자가 더 많이 알려져 많은 이들이 사용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인다.

김갑용 명장은 현재 인천 연수구에서 경서동녹청자연구소 '도연요'를 운영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도예가의 외길을 걸어오면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불치병을 얻었고, 양쪽 어깨 근육이 차례로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제는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큰 작품은 빚을 수 없는 지체장애인으로 살아간다.

한편 김갑용 명장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트플러그(연수구 문화의 집)에서 일곱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전시기간은 6월20일부터 30일까지. (연수구 문화의 집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345-42 문의전화 032-749-6884)



▲ 도예가 김갑용 명장의 녹청자 작품.





선입견을 가지는 사회, 'No' 없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서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행정부

노키즈존? 노장애인존?

작년 여름, 집에서 동생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동생이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누나는 노키즈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노키즈존? 처음 듣는데, 그게 뭐지?”
용어에 생소해하자 동생이 설명을 해줬다. ‘노키즈존(No Kids Zone, 어린이 출입 금지 지역)’은 어린이를 동반한 손님을 받지 않는 장소를 말하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부 어린이가 안전사고나 소음문제를 일으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문제가 생기자 등장했다.

동생이 노키즈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동생은 모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모 의류브랜드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손님이 아이를 데리고 매장에 들어와 쇼핑을 하던 도중 아이가 매장에서 넘어져 다쳤다. 동생은 급한대로 매장 내 구급함에 있는 연고를 아이에게 발라줬고, 아이의 어머니인 여자 손님께서 사과를 했다. 손님은 아이가 다치자 당황했지만, 이내 괜찮다며 아이를 데리고 매장을 나갔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건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며칠 뒤 동생 매장에 백화점 관계자가 찾아와서는 컴플레인인 들어와 자기가 징계를 받게 됐다고 하소연을 했다는 것이다. 다름 아닌 아이를 데리고 왔던 여자 손님이 백화점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생 매장에서 아이가 다친 것을 언급하며, 백화점 내 시설 안전성에 불만을 표하고 보상을 요구

하는 항의성 글을 올린 것이었다.

동생의 말에 따르면 사실 여자 손님은 아이를 매장에 데리고 와서는 옷만 구경했지 아이가 매장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는 신경도 안 썼다고 했다. 혼자 뛰어나는 아이가 불안했지만 여러 손님을 상대해야 했던 동생 입장에서 아이만 케어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전혀 관계없는 백화점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노키즈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런 특정 손님을 거부하는 실태가 어린이와 부모만이 아닌 장애인에게도 향하고 있었다.

작년 12월 한 청각장애인이 흥대 인근에 있는 레스토랑에 예약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해당 장애인인 구화가 가능해 음식 주문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화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어 청각장애인 통신중계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이 레스토랑은 예전에 왔던 청각장애인 손님과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장애인의 예약을 거절했다. 당사자는 이 사연을 SNS에 올렸고 해당 레스토랑에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레스토랑 책임자는 홈페이지(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사과문이 또 문제가 되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레스토랑 측은 “저희는 장애인 분들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고, 이전에도 청각장애인 손님과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어렵고 ‘노키즈존’과 비슷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입장을 제한했으니 장

애인 입장 거부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이해명은 네티즌과 여론의 분노를 더 야기했다.

위의 두 사례는 모두 특정 층에 대한 거부, 차별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차별이 타당한 것인가. 우리나라는 헌법 제11조 1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법 앞에 있어 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도,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도, 장애인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서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왜 동생은 어린이와 부모 손님이 대한 차별을 옹호했을까? 흥대 레스토랑 주인은 왜 장애인 손님에 대한 차별을 노키즈존과 같이 합리화했을까?

선입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 필요

법은 모든 국민의 평등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모든 국민 중에서도 나의 평등과 안위를 중시한다. 내가 평등하려면 상대

방도 평등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아이를 동반한 손님, 한 장애인과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는 이러한 이유로 모든 어린이와 부모를, 특정 장애인을 거부하는 행태는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는 식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님을 가려받는 것은 엄연히 업장의 자유이며 권리이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어린이와 장애인’은 불편한 존재라는 편협한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될 수 있다. 실제로 노키즈존의 경우 일부 아이 엄마들의 “눈치보여서 카페를 못간다, 음식점을 못간다”는 반응들도 SNS상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우리사회에 퍼져 있는 특정층을 향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들은 사실 잠깐의 현상이 아닌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어왔던 문제들이다. 그렇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눈앞에 닥친 문제만 없애려는 태도는 절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또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사회가 개선해나갈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누군가에게 ‘No’를 외치는 않았는지,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86호 2017년 6월 16일

편집장 / 임민호 기자 / 오창석, 이정희, 디자인 / 이희진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음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스라엘 장애인 복지 소개 ②]

이스라엘 장애 어린이재단

(일란 ILAN Israel Foundation for Handicapped Children)

(지난호에 이어서)

■스포츠

일란은 체육 활동이 장애인의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컨디션을 향상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스포츠 활동은 장애인들의 경쟁을 위한 운동, 사회 활동을 위한 휠체어 무용과 합창 활동으로 각각 구분된다. 일란은 두개의 특별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곳의 시설 모두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 경기를 위한 운동

이곳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훌륭한 선수들은 이스라엘과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장애인올림픽의 선수로 되기도 한다. 이곳에서 훈련

받은 장애인 선수 안발 피자로 2016 리오 장애인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수상하며 일란과 이스라엘에 큰 영광을 안겨주었다.

• 재활을 위한 운동

살-갈(Sai-Gal)은 [라마트 간]에 있는 일란 스포츠 센터에서 진행되는 특별 휠체어 농구 게임이다. 장애 청소년(팀의 60%)들과 비장애 청소년들이 모두 휠체어를 타고 경기를 진행하는 전통 있는 농구대회로 자리 잡았다. 겐(Gym)은 장애인들을 위한 피트니스 시설이다. 운동 기구들은 장애인의 신체 유형에 맞게 제작되어 제공하고 있다.

재활을 위한 스포츠 활동으로 일란 스포츠 센터의 대표적인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다.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휠체어 농구, 휠체어 테니스, 탁구, 수영, 육상 등의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있다. 전국의 장애 어린이

이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서를 운송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 재활치료를 위한 수영: 이 활동 역시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과 성인들로 구성된 소수의 그룹이 매일 1-2시간 동안 재활 치료의 시간을 갖고 있다. 특별히 다양한 신체장애를 가진 참가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 치료를 위한 승마: 승마는 신체 장애인들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체 균형 향상에 도움을 준다. 신체장애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동하고 움직이는 값진 경험을 제공한다. 가능한 경우, 말을 돌보는 법에 대해 배우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발달에 도

움을 주고 있다.

■교육

일란은 특수학교와 유치원을 설립을 위한 지원과 기존 시설에 장학금 및 교육교재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32명의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16개의 특수학교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취업

일란의 회장을 맡고 있는 에후드 라파비 씨는 이스라엘 의회의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가 의정활동 중에 장애인 취업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여 개인 고용주는 전체 직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의 5%를 고용하도록 했다. 일란은 환자들이 직업을 찾는 일과 잠재적 고용주와 연결하는 일을 돕고 있다.

• 컴퓨터 공장: 일반 기업의 취

업에 성공하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 텔아비브에 공장을 세워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 주간 센터: 일란의 주간 센터는 장애인 개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장애로 인해 사회와 단절됨으로 야기되는 외로움과 지루함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회 참여를 극대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독립성과 삶의 자신감 향상을 위해 필요한 스킬을 제공하는데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란의 2017년도 예산 규모는 약 292억원이다. 2016년도 예산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재활센터 운영에 71.2%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각 지부 운영비용으로 18.1%, 홍보 및 자금 모금활동에 7.3%, 행정 및 일반운영비로 3.4%가 집행되었다.

하우스 오브 휠 (House of Wheels)

「하우스 오브 휠」은 이스라엘 현지 명칭 베타-하갈갈림(Bet-Hagalgalim)으로도 불리는 비영리 장애인 기관이다. 1979년 설립된 이후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이스라엘 6개 지역에서 450명이 넘는 뇌성마비와 근육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지난 5월10일 서울 동송동 이음센터에서 열린 이스라엘 장애인재단 강연회에서는 「하우스 오브 휠」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 중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상호작용 사례를 위주로 발표했다. 이번 회에서는 발표 내용을 축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이 단체의 대표는 프니나 슈바르츠-슈르 박사(Dr. Pnina Schwarcz-Schur)로 첫 번째 사례 발표자로 나섰다. 순수한 민간 봉사단체로 출범한 하우스 오브 휠은 약 37년 역사가 결코 순탄치는 않았다고 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장애인 관련 시설이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주민들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각 권역별로 6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 건축물은 장애인의 가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꾸며졌다.

매년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시설 견학과 함께 이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주민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 마을에 시설이 들어오던 것을 반대했던 자신들의 태도를 사과하며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우호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후원자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단체는 뇌성마비와 근육장

◀ 「Rolling Experience」의 장애체험에 비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 House of Wheels



▲ 하우스 오브 휠에서는 주말마다 15명의 장애 청소년들과 비슷한 수의 비장애 봉사자들이 만남을 갖고 함께 생활한다. ©House of Wheels

애를 겪고 있는 장애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시설에 입소하여 한 주 동안 장애 아동을 돌보아야 했던 부모나 가족들에게 휴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장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비장애 친구들과 가지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그룹을 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비장애 어린이들에게도 장애 어린이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장애 아동에게는 자립심을 기르고 사회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룹의 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 매달 주말마다 15명의 장애 청소년들과 비슷한 수의 비장애 봉사자들이 만남을 갖고 함께 생활한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청

소년과 일반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통합 활동이다. 특히 동등한 입장에서 만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과 무슬림, 기독교인들이 개방적이고 친밀한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룹의 원칙은 누구나 기여할 수 있다. 주말동안에 음악활동(로템), 요리 샐러드(오르-엘), 언어장애인 봉사(요엘), 커피(렌) 등 본인이 원하는 각종 관심사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다. 18~30세의 젊은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이들을 위해서 한주에 5시간씩 그룹미팅과 동시에 매주 2시간의 개인지도활동을 한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병원에서 내과의사로 재직 중인 니르 바이게르트(Mr. Nir Weigert) 씨는 2008년부터 이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장애인

들과 함께 네덜란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봉사활동 중에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다. 그는 “계속되는 도전은 힘들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가 직면한 고난이 우리를 붙잡아선 안 되고 앞으로 나가도록 하기 때문이다. (장애)아이가 이런 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어떤 뜻인지 알 것”이라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Rolling Experience」는 하우스 오브 휠의 졸업생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이다. 하우스 오브 휠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벤처기업으로 장애를 가지고 매일의 업무를 해내는 것이 어떤 일인지 비장애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 현장을 제공한다. 장애 체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장애에 대해 소개와 인식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다.

휠체어 여행

물 따라 강 따라, 춘천여행

초록이 짙어 봄과 여름을 오가는 계절이다. 두 계절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어느 날, 강 따라 물 따라 춘천으로 달려갔다. 경춘 전철과 ITX 청춘열차가 운행하면서 춘천여행이 한결 가벼워졌다. 가벼워진 건 전철뿐만이 아니다. 춘천에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이동이 편리해졌고 춘천역에서 소양호까지 저상버스로 수시로 운행해 여행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춘천 하면 소양호수와 댐을 빼놓을 수 없다. 소양댐은 1960년대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 사회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여건으로 댐 건설이 시작됐다. 댐이 만들어지면서 인근에 수많은 마을이 물속에 잠겼고 일대는 호수가 생겨났다. 구불구불, 구불 길을 따라 댐 정상에 올라서니 바다 같은 소양호가 잔잔하게 버티고 있다. 물의 양이 워낙 많고 웅장해서 위압감이 든다.

소양강댐 정상에서 팔각정 전망대까지는 왕복 2km가 넘는 걷기 좋은 길이다.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초입엔 소양댐을 건설하며 목숨을 잃은 서른일곱명의 순직자 위령비도 만난다. 위령비는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위령비를 뒤로하고 팔각정에 올라가 소양댐 풍경을 찬찬히 스캔한다. 탁 트인 호수는 협곡산중에 둘러싸여 장관을 이루었다.

흐린 하늘 끝은 호수와 맞닿아 있고 비 갠 오후의 시간은 과거로 안내한다. 십여 년 전, 여름 장마가 한창일 때 여객선은 청평사 입구에 한 무리의 여행객을 내려놓았다. 그때도 지금처럼 비 갠 오후라 청평사 계곡물은 폭포처럼 쏟아졌다. 거침없이 쏟아지는 물결은 소양호로 빠르게 달려가고 풍경은 달력에서 빠져나와 청평사 계곡으로 이사 온 것 같았다.



소양호를 찾을 때마다 비를 동반한 것 같다. 어느 해 늦가을, 그때도 가을 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소양호에서 배를 타고 양구로 향한 여행이었다. 도시의 시간은 가을의 중간에서 서성이고 있었지만 소양호의 계절은 겨울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양구선 차량에서 내릴 때는 깊은 밤이었다. 양구 읍내 몇몇 가게에서만 불빛이 새어 나오고 찬바람만

이 거리를 풍뎠었다. 그 가을은 영화 '만추'와 닮았다. 영화에서 가을은 두 남녀의 거부할 수 없는 현실과 빈 마음을 대변한다. 훈(현빈)은 사람이 필요한 여자들에게 에스코트 서비스를 하는 한량으로 살아간다. 애나(탕웨이)는 전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다.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부모님의 사망소식을 듣고 3일간 휴가를 받아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훈을 만났다. 훈은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는 중이다. 이름도 몰랐던 애나와 훈, 호기심하던 훈의 눈빛이 진지해지고 표정 없던 애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를 때쯤, 누군가 훈을 찾아오고 애나도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 소양호수가 애나처럼 쓸쓸하고 고독해 보였다. 비 갠 오후라 그런지 초록으로 만개한 소양호는 그때의 늦가을을 품처럼 스산해보였다.

팔각정을 내려와 물문화관으로 발길을 이어갔다. 물문화관은 휴게실과 전

전운선 장애인 여행작가
한국접근가능관광네트워크 대표

시설로 구성돼 있다. 물에 관한 전시도 볼 수 있지만 워터 갤러리가 있는 전망대 지하 1층 야외 테크에서 '소양강 처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더 좋다. 수줍어하는 소녀와 나란히 포즈를 취해본다. 박제된 처녀의 나이는 열여덟 살 딸기 같은 붉은 감수성을 상기시킨다. 나도 그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이 얼마나 눈부시고 풋풋한 아름다움인지 잘 몰랐다. 세월이 흐르니 열여덟 싱그러움은 유월처럼 익어 숙성되어 간다. 문화관을 나와 선착장으로 발길을 이어갔다. 청평사로 가는 배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여행객의 접근을 막고 있다. 손상이 없을 때의 나와 손상이 있는 후 나의 본질은 변함없는데 그때처럼 유람선을 승선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언제쯤 유람선을 이용해서 청평사에서의 추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날을 기다리며 뱃길 대신 육로로 가는 청평사를 다시 찾아야겠다.

· 가는 길

용산역에서 itx 열차 이용. 상봉역에서 경춘전철 이용.
춘천역에서 150번 저상버스 승차
소양댐까지 이동
강원장애인 콜택시 광역지원센터
1577-2014

· 먹거리

소양댐 아래 뽕 샘발 증점 앞 왕초
춘천 닭갈비
전화 033-242-6878

· 장애인화장실

소양댐 주차장과 장애인 화장실

Quiz

01 이번호부터 '휠체어 여행'을 연재합니다. 여행면을 통해 생생한 휠체어 여행의 세계를 안내할 장애인 여행작가의 이름은?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응모요령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news@kappd.or.kr)

독자의견

이스라엘 장애인 어린이가 재단 '일탄'에 대한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장애인에 대한 지지와 예산 투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김예원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마르셀 허그, 홍석만
대전 동구아름다운복지관

당첨자

경기 용인시 김예원
서울 노원구 한상호



복지마당

‘새로운 지장협의 역사를 써내려갑시다!’

존경하는 전국의 지장협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5월31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지장협 제8대 회장으로 선책을 받았습니니다. 지장협은 살아 있고 대의원 여러분의 선택은 위대하였습니니다.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지면을 통해 모든 회원 앞에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향후 장애인운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양해와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무게는 책임감으로 회원 여러분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누가 저의 아들에게 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묻는다면 한국지체장애인의회 회장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남고 싶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훌륭한 상사가 되고, 후배들에게는 선배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훌륭한 선배로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국가와 사회 앞에서는 지장협의 회장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우리 협회의 위상과 면모를 새롭게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지장협 제8대 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승자를 가려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치열한 선거전을 벌여야만 합니다.

이번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자가 각 시·도 협회장직선제 선거실시에 대한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속된 단체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것은 회원의 고유 권리이며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는 이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직접 선출 방식의 선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대안일까 하는 측면에서 깊이 고민해보았습니다.

직선제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실천하여 회원의 권리를 더욱 드높이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협회 고유의 위상을 지켜낼 수 없을 만큼 회원의 결속력이 느슨해질 수 있고 심지어 협회의 존립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마치 양날의 칼과도 같이 부정적인 결과 또한 초래할 수 있기에 예측되는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선거를 통한 선출 방법은 부득이한 경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열된 선거운동을 막을 방법이 없을 뿐더러 선거 이후에도 그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각 시·도 협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경우 각 지역의 독립성을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하나의 위상을 자랑했던 지장협은 사실상 17개 시·도 협회로 분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국 단위의 중요한 정책이나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회가 구심력을 잃어버릴 경우 지장협은 힘을 잃어버린 민낯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장애인복지의 수준은 곧 지장협의 역사가 이루어낸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지장협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장애인 단체 가운데서 만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약한 사람들을 이어나갈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지장협이 지난날 험거운 투쟁을 벌이며 씨앗을 뿌려 온 그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장협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황무지와 같은 토양위에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파생적인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지장협이 눈물을 흘리며 차려놓은 밥상에 이 순간 하나 더 올려놓듯이 이 땅의 장애인운동은 분열하고 난립하며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장애계는 새로운 장애인 운동을 펼쳐야만 합니다. 우리 장애계 내부에서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정신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장애계는 제도의 틀 안에서 안주하려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히 쇄신하고 스스로 일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기

독권에 의해 잠들어 있는 구태의연한 모든 것을 척결하고 장애인 단체의 면모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강력한 위상의 지장협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일치단결하며 보여주는 강력한 결속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가오는 제8대 회장의 임기 동안에 설록 여러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듣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 할지라도 장애계의 혁신을 위한 역할을 과감히 감당하겠습니다. ‘육먹을 각오’를 하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할 부득이한 그 일을 우리 지장협이 발 벗고 나서야 하며 그 선두에 언제나 제가 서 있겠습니다.

지장협의 위대한 회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장협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교두보를 건설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힘을 모아주시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의회

김광환 제8대 중앙회장 당선인



리더스토리

플러스알파의 관심이 필요한 세상

요즘 어느 매스컴에서 나오는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접한다. 주인공들의 많은 노력과 정성 그리고 창의적 생각과 용기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서민갑부”라는 단어에 많은 사람들은 매스컴의 주인공처럼 부자가 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러나 서민이 갑부가 되기가 쉽겠는가. 그분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흘린 땀을 합치면 백마강 감물이 불어나지 않겠는가?

필자는 현직시절 관내 식당에 자가 체크리스트를 주고 본인의 식당을 점검해 점수를 취해보라고 한 적이 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장사가 매우 잘되는 식당의 점수는 70점 정도고, 장사가 잘 안되어 폐업 위기에 있는 곳은 100점 만점에 가깝게 자가 진단이 나왔다.

장사가 안 되는 식당 주인의 생각은 본인은 완전한데 손님이 문제라 자기 집을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장사가 잘되는 식당의 주인은 아직도 손님 눈높이를 맞추려만 보완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

위에서 보듯이 나는 잘 하고 있는데 남이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상대의 마음에 맞추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가진 역량을 100% 발휘했을 때 고객은 만족할까? 예를 들어 자동차 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A정비소에 가서 오일을 교환했다고 하자. 사장님은 친절하고 신속히 오일 교환을 마치고 친절히 손님을 보낸 후 자신이 오일을 교환하는 데 100% 역량을 발휘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B정비 업소는 A업소 사장

님과 마찬가지로 친절히 신속하게 오일 교환을 해 주고 공기압 점검, 타이어 상태 확인, 냉각수 점검, 엔진 점검 등 고객의 차에 추가로 관심을 가져주었다. 여러분은 어느 정비 업소에 가서 오일을 교환 하겠는가?

현대사회에서는 100%만 발휘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도 고객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장애인복지도 본연의 업무 외에 각자의 장애 특성을 최대한 어루만져주는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찾아오는 고객만을 접하고 그들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 가정에서의 생활이나 취업 알선 등 스스로 자립하는 대가치 좀 더 플러스알파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왔어요.” 어느 산골에 사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보조 도움으로 복지관에 처음

오던 날 장애인의 어머니께서 울면서 하신 말씀이다.

거동이 불편한 아들이 40년간 집에만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어머니의 소원은 아들이 집밖에 나가 사람들과 웃으며 소통해보는 것이 되었다.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온 모습을 본 어머니는 얼마나 좋으셨을까.

우리가 못 챙긴 소외된 장애인을 1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10% 더 발휘해 보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기 좋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정도기 관장

2017
KADO

The Korea General Art Festival
Of The Disabled

제 30 회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접수기간

6.12-8.4

사진부문·미술부문 공모

세부공모방법안내 : www.kappd.or.kr

■ 사진부문 공모

- 작품주제 : 장애인
- 부문 : 일반카메라 / 휴대폰사진

■ 미술부문 공모

- 작품주제 : 자유
- 부문 : 서양화 / 동양화 / 서예

■ 문의 : 02-2289-4381

(담당자 : 오창석, oh@kappd.or.kr)

제29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서양화부문 대상 수상작 김주영 '자화상'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